

목록

2012_상반기_1	1
2012_상반기_2	2
2012_상반기_3	3
2012_상반기_4	4
2012_상반기_5	5
2012_상반기_6	6
2012_상반기_7	7
2012_상반기_8	8
2012_상반기_9	9
2012_상반기_10	10
2012_상반기_11	11
2012_상반기_12	12
2012_상반기_13	13
2012_상반기_14	14
2012_상반기_15	15
2012_상반기_16	16
2012_상반기_17	17

정경희 교수님의 여는 말씀

12학년 새내기 한마디

박성재 교수님과의 즐거운 인터뷰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의 사서! 정미영 선배님과의 데이트!!

편파적인 당신을 위한 편파적인 야구관람기

지식정보학부 소모임 밴드 '치명타' 소개

2012 지정인의 모습



S/S시즌, '지정인'들을 위한 Hot Trend 패션 / Hot Place

도심 속 작은도서관 '서경로 꿈마루도서관'을 가다

새내기가 바라본 새 · 연 · 체 · 축!

편집후기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2012

상반기

그림비

40
한성대학교
40th Anniversary

❖ 목차

• 정경희 교수님의 여는 말씀.....	2
• 12학번 새내기 한마디.....	3
• 박성재 교수님과의 즐거운 인터뷰.....	7
•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의 사서! 정미영 선배님과의 데이트!!.....	9
• 편파적인 당신을 위한 편파적인 야구관람기.....	11
• 지식정보학부 소모임 밴드 '치명타' 소개.....	14
• 2012 지정인의 모습.....	15
• S/S시즌, '지정인'들을 위한 Hot Trend 패션 / Hot place.....	17
• 도심 속 작은도서관 '서경로 꿈마루도서관'을 가다.....	19
• 새내기가 바라본 새·연·체·축!.....	21
• 편집후기.....	26

정경희 교수님의 여는 말씀

'어떻게 열심히'보다 '무엇을 왜'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수업이나 개별면담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묻게 됩니다. 그 수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한 목표나 동기가 있어 문헌정보학을 선택한 학생들보다는 성적에 맞추어 왔다거나,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오게 되었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초·중·고 12년의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어떠한 것을 왜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며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대학 입학 그 자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한 이유, 이 학문을 통하여 무엇을 공부하고 얻으려 하는지, 더 나아가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대학 문 앞까지 여러분 스스로 길을 물어가며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이곳에 데려다 놓은 듯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다 놓은 누군가는 손을 놓고 사라지고 여러분은 혼자 남겨진 거지요?

대학이 목표였던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여러분은 아마도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보다는 '무엇을 왜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며 공부하고 인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대학생활 4년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 앞에 너무나 긴 시간이 주어집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81.2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100세 혹은 125세를 살게 되겠지요. 어림잡아 대학을 25살에 졸업한다고 하면 그 후 10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4년은 졸업 후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것이지요. 졸업 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긴 여정의 여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이란 것은 단순히 여비만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이나 사서가 목표가 아니라 사서라는 직업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그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의 문제이지요.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 무엇이 올바른가? 그러지 말아야 할까?'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자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건 적건 늘 직면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때 누군가의 일방적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고 자신 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대학 4년간 열심히 고민한다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닌듯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저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니깐요. 그렇지만 대학생인 여러분은 적어도 이러한 고민을 '직업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 잠고 책상 앞에 앉아 밤을 새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자기만의 사색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학교 안팎에서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전공 및 관련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책을 읽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조금씩 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림비』가 문헌정보학과 학우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답을 얻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학년 새내기 한마디

강지희

대학생활은 고등학교 때보다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다. 전공에 관한 수업도 나름 재미있고 원하는 과목만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애드하고 친해지고 싶고 재밌는 대학생활을 하고 싶다.

강혜선

대학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동기들은 어떨까? 선배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것을 배우는 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관한 걱정을 했던 것 같다. 수업도 재밌고 동기, 선배님들이 너무 좋다! 앞으로 대학교 안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

고주연

대학 오니까 자유가 많아진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그 자유를 제가 적절히 조절하고 지혜롭게 쓸 수 있어야 보람찬 대학 생활이 되겠죠~ 앞으로 여러 활동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열심히 살다보면 완벽한 성인이 되어있을 거예요~ 지정과 핫팅!

권순삼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설렁한 분위기 때문에 적응이 힘들었다. 하지만 슬슬 날씨가 풀리고 해가 뜨고 꽃이 피면서 교수관계도 학업도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 같다. 열심히 해서 스스로 즐거움을 창출하고 싶다.

김다정

고등학교에서는 짜여진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니 지겹고 그랬는데 대학에 와서 내가 시간표도 짜보고 수업이 없을 때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이 라는 처음에 너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도 많아지고 좋은 것 같다.

유재훈

새로운 사회에 들어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대학교에 와서 경험해보니 너무 즐겁다. 앞으로도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싶다.

유진

재미있지만 할 줄 알았는데 과제도 많고 공강시간도 많아서 힘든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학교 생활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뭔가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좋아요ㅎㅎ 뭘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려고요!!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랑 행사, 그리고 그림비도 기대되요~ 모두모두 후회안되는 대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윤아림

아직 4월이라서 진정한 대학생활을 경험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동영영은 다녀오면서 동기들도 너무 착하고 선배님들도 너무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나머지 대학생활이 더욱 기대됩니다. 더 잘아가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아영

입학하기 전엔 대학생이 된다는게 많이 두려웠지만 지금 정말 즐겁고 재밌다. 대학이랑게 이런 거구나 많이 느끼고 있다. 솔직히 꿈도 비전도 없이 과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왔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워나가면서 내 꿈을 찾아보고 싶다. 그리고 문화부 짱!

이동호

입학하고 나서 대학일기를 준비하던 때의 짜여진 시간에 따라 활동했던 것에 비해 큰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학점관리의 어려움은 나에게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주었다. 그래도 대학 생활의 여유로움은 충분히 즐기면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기대된다.

김병국

무언가 내가 꿈꾸던 대학교와 2% 다른 부분도 있지만 중, 고등학교보다 훨씬 즐거워 정말 재미있다. 지식정보학과는 정말 유익한 강의와 지식이 풍부한 교수님들이 있어 정말 좋은 것 같다. 기획부 파이팅

김보경

내가 생각하던 대학 생활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어쨌든 자유시간이 많아서 더 좋다. 우리 과는 처음에는 뭐하는 과 인줄 몰랐지만 강의력을 듣다보니까 많이 알게 됐다. 나름 적성에 맞는 과인 것 같다.

김애영

과의 회계보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투명하게 재정관리 하려는 학생회의 노력과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고 아껴주시는 선배들의 모습에 이 과에 잘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학교 생활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운 좋게 좋은 과에 들어와서 행복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기뻐요~!!

김예지

사람이 아니라는 고삼 생활을 거치고 드디어 대학에 왔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나름대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 남은 대학생활도 즐겁게 보내고 싶다.

김민주

원하는 과목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아직은 문헌에 대해 공부중이지만 어서 2학년이 되어서 기록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맞는 것은 들어서인지 수업도 재밌고 학교 생활도 너무 재밌어요. 특히 우리학교는 이용시설이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과 재미있는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군요♡

이별남

우리 학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이 아직 저한테 어려워요!!! 천안에서 통학해서 그런지 집에는 여전히 늦게 들어가지만 재수할 때나 고등학교 때보다 시간이 많아서 좋긴해요 ㅋㅋ

이보라

대학교생활 힘들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때에 비하면...ㅋㅋㅋ 늦 때는 열심히 하고 동아리, 집부 활동 열심히 하고 시험기간 때는 쿨하게 공부하는 걸 해줘요ㅋㅋㅋ 아! 이번엔 그림비 아주 작정하고 만드거니까 많이많이 봐주세요용 ㅋㅋㅋ 길이 남은 편집부 파이팅! ㅋㅋㅋㅋ

이승미

대학에 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열심히 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추억이 가득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동기들 선배님들 그리고 일 년 뒤에 들어온 13학년 후배님들라도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용준

노리고 들어온 과이기 때문에 솔직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들어온 지 약 2주 정도는 약간 실망한 것도 없었던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후론 대학생활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는 아마 처음 2주가 순만 먹는 생활을 보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대로 된 전공수업을 듣지 못해서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은영

배우는 수업들이 많이 낯설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내 삶은 적성을 찾아보고 싶다.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선배들, 동기들라도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김지영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와서 기분이 좋다. 라보니 학교크기가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지만 있는 것은 다 있어서 불편할 점은 없다. 특히 학습정보관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어서 좋다. 지정과 하이팅!

김채영

대학교, 자유로운 공간 알았는데 과제도 너무너무 많고 시험도 걱정되네요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집부 활동 할 생각하면 힘이나요! 과제도 시험공부도 학교생활도 모두 열심히 해서 1학년 생활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박제민

처음엔 많이 걱정되고 어색할까봐 걱정했다. 전공수업도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였다. 하지만 과에 좋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좋은 동기들도 있어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다.

박혜성

처음에는 적응이 안되어서 힘들었는데 적응이 되니까 학교생활이 기대했던 것보다 자유롭고 재미있다. 가능하다면 더 많은 학교행사에 참여하고 싶고 전공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배소연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매우 궁금했었다. 대학에 오니 확실히 그전보다 자유로움이 느껴져서 좋다. 다들 생기발랄하고 즐거운 보여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정민

원하는 학교, 과는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학교에 정을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기들끼리 자주 모여서 더 친해질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지환

저는 원래 학교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생활이 너무 재밌습니다. 앞으로 동기들끼리 자주 모여서 더 친해질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학교생활은 해보니 벌써부터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편집부 활동해서 그림비 예쁘게 만드겁니다. 많이 구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기간엔 열공하고 늦편 열심히 노는 열혈 지정인이 됐음 좋겠습니다! 모든 지정인들 핫팅해요~

이하중

대학라서 좋은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만나서 좋습니다. 지금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4학년까지 이대로 좋은 후배들까지 만나고 싶습니다.

임성진

대학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기분 좋습니다. 4년 동안 행복한 대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희진

생각보다 아담한 학교 규모에 놀랐지만 은근 가볼 곳도 많고 재밌다. 처음 입학했을 때 '학점관리 잘 해서 장학금 받아야지' 했지만 어느새 발견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지. 아무튼 지정과 파이팅!

여영재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작년보다 훨씬 편하고 다니기 편하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꾸 지각하는 것이 걱정이야. 열심히 살아야겠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건우

역시 자유로운 것이 좋다. 내 생각이상으로 사생활 시간이 널널해요. 참 살맛난다. 배우는 것도 고등학교 시절의 틈에 박힌 체제를 탈피해 자유성이 녹아있어 좋다. 이 같은 여유가 길었으면 좋겠다.

오재석

개인적으로 현재 인문 대학에 있는 학과 중 가장 비전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용적인 학과를 시대에 앞서 배워나가신 선배님들께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유예진

대학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까지의 생활과 다르게 대학생활을 하면서 기대감과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로 만난 친구들라도 즐겁게 보내면서 앞으로의 생활도 더욱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과제와 시험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모두 다 하이팅합니다~!

임진영

대학교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자기 관리에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좋다. 게다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다가온다.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약간 어렵게 다가오지만, 지정과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그림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대학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림비가 이번 호에서 많이 바뀐다고 했으니 그만큼 동기나 선배들이 그림비에 관심을 주신다면 좋은 것 같다. 길이 남은 편집부 짱!

임현설

대학생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설레기도 했지만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었다. 선배님들과 동기들도 최고다. 아직은 풋풋한 신입생이니깐 공부보다 더 많이 놀고 싶다. 대학 생활을 충실히 하여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싶다. 편집부원으로서 그림비를 만들려니 많이 기대된다. 편집부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다!♡♡♡

임혁영

맨 처음엔 공강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동기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 남은 과 행사 너무너무 기대되구요 모두 즐기며 후회 없는 대학 생활해요!

정나라

아직까지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지만 과실에 오면서 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적보다도 적성대로 왔기 때문에 학업에 많이 뒤쳐집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강 때마다 헬스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효영

원래 꿈이 있는 학과에 들어와서 만족한다. 솔직히 수업은 나와 안맞지만 곧 적응할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외에도 농구, 축구를 하며 재밌게 놀고 있고, 선배님들도 너무 잘 대해주셔서 학교 오는게 재밌다.

주소민

대학생활에 대한 환상을 가득 품고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도 많이 해야지 했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차차 해나가겠습니다.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도록 해박요 잘 부탁드립니다.

최가희

대학생이 되고나서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것 같다.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기대보다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서 너무 좋다! 또 교수님들, 선배님들, 동기들이 모두 좋아서 지정과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공부도 노는 것도 편집부 활동도 열심히 해야겠다. 길이 남은 편집부 파이팅!

최규빈

집과 학교사이의 거리가 멀어 통학시간이 길기 때문에 학교에 오는 순간과 집에 가는 순간은 정말 지겹도록 싫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와서 생활하는 시간만큼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고 사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아람

내 생각과는 많이 다른 학과, 학교의 규모에 놀랐으나 금방 적응했다. 선배들과 동기들은 매우 훌륭하고, 생기발랄하고, 멋지고 예쁘며 또한 아름답다.

허유나

대학교라서 그런지 확실히 고등학교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대학교 생활이 좋은 점은 내가 스스로 시간표를 짜는 것과 자유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 등. 인 것 같다.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야겠다.

손종현

지정과에 오게 되어서 너무 좋구 잘 부탁드립니다~!!

여지은

우리 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밝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지정과에 들어오길 너무 잘했어요. 지정과 짱!! 사랑해요 지정과!! 나이스 멋져 나이스 멋져 지정과!! 오메 케케

윤선우

모두 대학에 온 목표 꼭 이루세요.

이동현

과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회가 새로워요. 우리 과에서 노력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과 파이팅!

이서영

내가 들어야 하는 수업은 정해주던 초, 중, 고 때와는 달리 내가 듣고 싶은 수업, 앞으로 나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수업은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공 뿐 아니라 교양 선택의 폭도 넓어졌으면 좋겠다.

함순근

원했던 과에 들어와서 좋았지만 전공 수업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도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설레고 즐겁다. 자유가 주어졌으니 여러 가지 많은 것은 경험해서 알차고 보람된 4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함인애

학교 다니는 길이 힘들긴 해도 학교 와서 친구들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지내는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이 더 많은데 여러 활동들에 자주 참여하면서 모두 보람 있는 대학 생활 만들어요^^

강연주

지식정보학과를 들어오게 되어 설레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까... 근데 막상 와보니깐 다들 너무 잘 배우시고 친구들도 다 좋아서 지금은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지정과 멋져요!!!!

김서령

처음엔 지식정보학부가 무엇을 전공하는지 잘 몰랐는데 서서히 알아가니 여기 오길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오

지식정보학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선배들이랑 동기들이 너무 착하고 전사 같고 그래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은옥

힘들게 대학에 와 기쁩니다!! 모두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동기옐티를 사정상 못가서 안타까워요..... 모든게 새로워서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내요!

이은지

과에 와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고 앞으로 보람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정훈

대학생이 되었으니 좀더 대학생답게 자신을 가꾸어 줄 알고 목표가 확실히 되었으면 좋겠다.

이지선

지식정보학부에 와서, 단지 사서가 될 수 있다는 정보만을 가지고 왔었는데 전공을 배우고 여러 교양 수업은 들으면서 제가 알지 못해서 불편했던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력제

처음에 지식정보학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생소하고 무슨 공부하는 과일까 같이 잡히질 않는 과였다. 하지만 공부하고 보니 점점 과에 대한 아우트라임이 생기고 동기들, 선배님들과 친해지고 나니 이 과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비록 주간 동기들과는 친해질 시간이 적어 아쉬웠지만, 내가 노력하면 될 터, 앞으로 기대되는 대학교 생활이 되게끔 해주는 이 과가 정말로 마음에 든다~~

김욱

학과의 교수님들과 동기들이 모두 좋은 사람 같습니다. 아직 많이 지나지는 않아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이제 첫 발걸음을 뚫어 이 학과에 온 것이 즐겁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은지

지정과에 오게 되어서 책에 대해 관심도 많이 생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너무 좋아여^^ 앞으로 더 많이 배우면서 지식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김효진

동기들 모두 착하고 재밌고 선배님들도 정이 넘치세영♥_♥ 대학 생활 넘 재밌어요. 지식정보학부 파이팅!

박가인

지식정보학부에 오게 된 소감은 처음엔 과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왔지만 전공 수업을 들어보니 사서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유망한 진로를 가진 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박다운

만나서 반갑습니다!! 크크 아직 좀 정신없고 앞다리기다리기 해요. 그래도 선배님도 동기들도 다 좋은 것 같고 생각했던 것 보다 스무스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장보경

지식정보학부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성수

새내기로 들어오면서 생소한 이름 때문에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지만 알게 된 것은 문헌정보학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사람은 경험해야 안다는 말이 있듯이 입학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수업을 들어보니 무엇을 배우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흥미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교수님, 조교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 이 과에 들어오길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원석

대학교에 와서 적응 못하면 어쩌하나 고민했는데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 적응도 잘하고 행복합니다. 한성대 지정 파이팅!!

정다솔

너무 착하고 좋은 선배님들과 동기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짧은 시간동안 벌써 너무너무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쁘요^^ 앞으로 보내게 될 날들이 너무 기대되요~ 아직 공부가 낯설어서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교수님들이 차근차근 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적응이 될 수록 매력에 있는 과목인 것 같아서 재미를 느껴가고 있어요.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행사에도 참여해서 즐거운 대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회로의 첫걸음인 대학생활을 지정인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정원일

비록 처음에는 지정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오게 되었지만 학과를 다니다보니 점점 알아가서 좋습니다. 물론 학교생활도 만족하고 있고요.

박순남

지정과 너무 좋아요! 다들 너무 착하시고 서로에게 관심 가져 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동기들과 멋진 2012년을 만들고 싶어요.

박주희

지식정보학과라는 과에 처음 왔을 때는 단지 지식과 정보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서라는 직업에 대한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 미래의 나의 직업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나는 지식정보학과에서 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박준범

저희과는 우선 정말 화목한 것 같고요. 주야간 허물없이 어울리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2.0시대에 비추어 볼 때 전망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ㅎㅎ

백수지

아직 대학생이 된 것이 실감이 안나고 적응도 덜 되었지만 오고 싶었던 학교, 학과에 와서 좋다. 게다가 지정과 분들 정말 좋다! 근데 전공은 좀 어렵다 ㅏ

서영지

사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에 지원했다. 야간은 교직이수가 안된다는 것에 살짝 고민은 했지만 공립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길게 고민하지는 않았다.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고 열심히 하고 싶다.

조성미

지식정보학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나 잘 어울려주시는 선배님들과 하나같이 착한 동기들 덕분에 학교 적응도 빠르게 했고 재밌게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선배님, 동기님들 모두 감사해요^^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지정과 만세만세만세~

최수빈

솔직히 지식정보학부가 뭔 배우는 학부인지 잘 몰랐는데 와서 직접 배워보니깐 재밌고 잘 맞는 것 같아요.

한정민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지식정보학과와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함아영

처음에는 모든게 낯설었던 한성대학교 그리고 지정과. 수업 들을 때도, 쉬는 시간에 과실에 있던 시간 등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친절하고 유쾌한 동기들과 선배들 덕분에 나는 나름대로의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정과는 내 삶의 활력소가 될 것 같다. 지정과 핫팅!

박성재 교수님과 즐거운 인터뷰



도서관경영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시는데,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수업준비 과정에서 영어를 계속 쓰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그다지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죠. 학생들에게 영어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영어제출과제를 내주어 영어 표현을 많이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럼 혹시 불편하신 점도 있나요?

일단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상호작용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업 진행이 힘들 때가 있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많은데, 영어로 설명하고 다시 한국어로 설명해야 하니 수업에서 다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수업이 주로 토론과 발표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과목이 도서관경영론인데, 이 과목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배울 점이 많은 과목이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장서선택의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 보다는 토론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발표수업을 하죠.

미국에서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유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유학을 준비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생각이 넓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해외유학을 갔다오면 분명히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 저의 생각이 더 커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은 모든 것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힘들었어요. 때문에 유학을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영어라고 생각해요.

수업 중에 하는 액티비티에 대한 소개와 차별화 된 수업을 추구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액티비티란, 팀 별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팀 프로젝트나 팀 회의 등 조별 활동을 함으로써 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과 팀을 어떻게 관리, 경영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딱딱한 강의식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어 수업 참여도를 높여줍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액티비티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 해 보자면, 먼저 Pass the stone이 떠오르네요. 이 활동은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책상과 책상사이에 마주보고 서서 동전을 옆사람에게 넘길 수도, 안 넘길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이 동전을 누가 가지고 있을지 맞추는 게임이에요. 아직 어색할 수 있는 조원들과 서로 전략을 짜면서 유대감이 형성되고, 어색함을 해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Trust work는 두 사람이 Leader와 Follower의 관계가 되어서 한 사람이 안대를 끼고 다른 한 사람이 길을 안내 해 주는 액티비티입니다. 이 활동은 서로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Follower를 이끌어 주면서 어떻게 명백한 지시를 내릴지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한 학생들이 실제로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가치있는지 평가 해보고 그것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활동도 기억에 남네요.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요. 대학을 다니면서 테니스 수업을 들었고, 미국 유학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테니스를 치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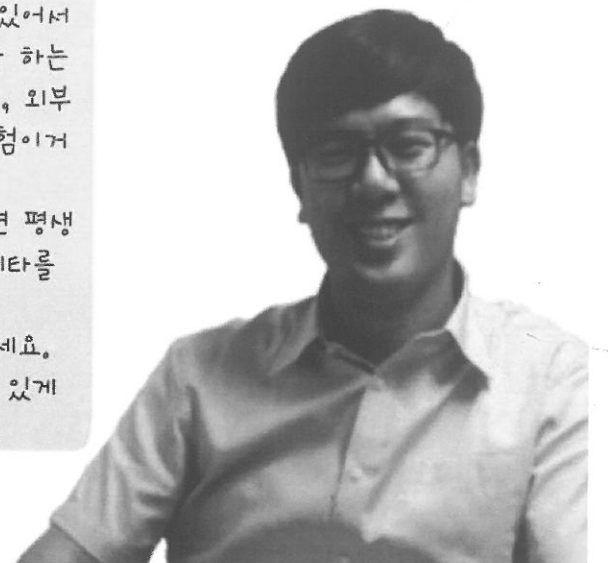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나달(Nadal)이에요. 이 선수는 스페인 출신인데 자유분방한 플레이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게 되었어요. 음... 요새는 나달과 조코비치의 팽팽한 경쟁을 눈여겨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선 수업시간에 손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이나 참여를 많이 하다보면 수업시간에 다른 주제까지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수업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해요. 교내 학과, 동아리, 외부 활동, 자원봉사 등의 활동은 대학생이 아니면 하기 힘든 경험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악기활동 등 취미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평생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대학 때 기타를 배우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요.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도전은 많이 해 보세요. 한 번 두려움을 이겨내면, 그것보다 더 큰 꿈을 바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겁니다.



기사 : 12 임현설, 12 최가희 편집 : 김채영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의 사서! 정미영 선배님과 인터뷰!!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91학번 정미영 선배님께서 졸업 후 홍익대학교 사서로 근무하시다가 18년 전 한성대학교에 행정직으로 입사하셨고요. 5년 전부터 도서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4년 정도 연속간행물실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4층 사회·과학자료실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하하,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전 그 외에도 학술정보관에서 <저자와의 만남> 등 문화행사를 계획·주도하고 이용자교육, 타 대학과의 교류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사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지금 공부하면서 사서의 매력을 느끼고 계시나요?
저는 솔직히 대학 4년 동안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서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도서관의 시스템이 IT와 연결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는 도서관의 발전 속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계발을 통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적인 직업이라는 점이 제가 느끼는 사서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직업이라는 점도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사서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흐으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감사 인사를 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일이 많아 힘이 들 때 이용자분들께서 격려와 인사를 해주실 때나, 도서관 예절을 지켜주시는 분들, 대출·반납 같은 도서관의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분들이 참 기억에 남죠. 하지만 간혹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시지 않는 분들은 참 안 좋은 기억으로 남곤해요.

정말 궁금한 건데, 모교에서 일하시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홍익대학교에서 일할 때는 직장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모교에서 일하다 보니 마음가짐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학생들을 후배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더 봉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도 해주고 싶어요.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고 그만큼 보람도 큰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졸업앨범이나 성적 등 숨기고 싶은 자료가 널려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식정보학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소통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미래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공을 살리지 않게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는 세상에서는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잘 듣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대학 때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편파적인 당신을 위한 편파적인 야구 관람기

바야흐로 야구의 시대가 도래했다. 2011시즌 600만 관중을 넘어서 프로야구는 박찬호, 이승엽, 김병현 등 해외파선수들의 가세와 전력평준화로 인해 더 큰 흥행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 편집부는 프로야구의 열기를 전해주는 한편, 선후배 사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대 최고의 야구팀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인 목동야구장을 찾았다.



↑ 목동야구장

목동야구장은 1989년에 준공되어 주로 고교야구경기장으로 이용되어오다가 2008년 히어로즈가 창단된 이후 프로야구경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목동야구장의 위치는 5호선 오목교역으로, 한성대입구역을 기준으로 지하철40여분 도보10여분, 총 50여분이 소요된다. 우리는 아쉽게도 학교수업이 끝난 6시경에 출발하여 7시가 넘어서야 야구장에 들어설 수 있었다. 양손에는 용기종기 일용할 양식을 들고서!!

Tip! 야구장과 야구장 근처 매장에서 파는 음식은 값도 비싸고 양도 턱없이 적다. 지나친 지출과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가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가 야구장을 찾은 5월 10일은 LG와 넥센의 시즌5차전 경기가 열린 날이었다. LG와 넥센은 2011시즌부터 연일 피 말리는 경기를 펼치며 신화 라이벌로 부상한 팀들이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전통적인 라이벌 경기인 '엘 클라시코(El Clásico)'의 이름을 따 일명 '엘 넥라시코'라 일컬어지는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보는 이의 심장을 쫓깃쫓깃하게 해주는 손 떨리는 경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아직 리그 초반이기는 하지만 양팀의 순위는 LG가4등, 넥센이 5등으로(5월10일 당일 기준) 이 날 경기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경기였다.

프로야구의 인기를 실감케 하려는 듯 이날 경기는 전 좌석 매진이 되었다. 바로 전날 히어로즈가 창단된 이래 처음으로 목동야구장 평일 매진을 기록한 이후 연이어 이어지는 매진사례였다. 전통적인 비인기구단으로 여겨지는 넥센 히어로즈의 평일매진은 갈수록 높아지는 야구의 인기를 반영하는 진풍경이었다.

사실 목동야구장이 이틀연속 매진을 기록한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해잡수함' BK 김병현의 등판이 예정된 경기였기 때문이다. 동양인 최초로 월드시리즈를 경험하고 우승반지를 하나도 아닌 두개나 가지고 있는 김병현의 한국 프로야구 입단은 야구팬을 넘어 전 국민을 열광케 한 사건이었다. 한때 한국 최고의 재능으로 일컬어진 김병현의 넥센 히어로즈 입단은 야구의 인기를 한층 올린 것은 물론 하위 팀인 넥센의 전력과 인기를 한 층 올려준 계기가 되었다.

TIP 좌석매진은 꿈도 꿀 수 없었던 만년 비인기 구단 넥센 히어로즈마저 좌석매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야구장을 가기위해선 예매가 필수적인 시대가 온 것이다! 수월한 야구 관람을 위해 우리 모두 야구장에 가기 전 꼭 예매를 하도록 하자!



↑ 야구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바로 김병현!



↑ 관중석에서 한 컷

야구장의 매력은 뭘니 뭘니 해도 응원에 있다. 재밌고 신나는 응원구호에 맞춰 응원을 하다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물론 덩달아 신이 나게 된다. 이 날 경기에서 우리는 넥센 히어로즈팬들의 좌석에 앉아 넥센 히어로즈를 응원하였다.(이제 내 자심이 아니었다고는 말 못하겠다) 예를 들어, 상대투수가 루상의 우리 팀 주자를 견제하였을 때 하는 '뽀야 뽀야 뽀야 뽀야 뽀야 뽀야!' 라든가 히어로즈 간판타자 강정호선수의 응원구호인 "날려라 날려버려 강정호 날려라 날려버려 강정호 날려라 날려버려 강정호 오오오오오오오 강!정!호!" 는 응원하는 사람 모두가 스트레스를 날리며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쉬운 멜로디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야구장에 처음 온 사람이라도 신나게 야구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이번 견학에 참여한 학우들도 처음엔 모두 쑥스러워했지만 결국엔 야구응원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다.

TIP 야구장의 매력은 탄원 응원에 있다! 처음엔 조금 수줍은 수도 있지만 소리 내어 힘차게 응원을 하도록 하자!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가시는 것은 물론 야구를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 이승우 선수

이 날 경기는 의외로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다. 양 팀의 선발투수의 명성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두 선수 모두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며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다. 역시 명불허전 라이벌전답게 손에 땀을 쥐는 명경기가 펼쳐졌다. 하지만 팽팽한 접전 끝에 웃을 수 있었던 팀은 넥센 히어로즈였다. 최종스 코어는 2대1 넥센의 신승이었다.(필자의 주관적이지만 사실인 견해를 덧붙이자면 이는 최고의 팀 넥센의 당연한 승리였다.) 한편, 이날 경기 승리투수인 넥센의 '김영민'은 329일만의 선발승을 챙기며 "예전과 달리 야구에 욕심이 생겼다면 올해는 야구를 잘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김영민의 승리는 크고 작은 부상을 거쳐 이룩한 승리라는 점에서 스포츠정신을 일깨워주는 대목이었다.



↑ 김영민 선수

TIP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이다! 오늘 경기에서 이름값 없는 양 팀 투수의 눈부신 호투에서 볼 수 있듯 야구는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매력적인 스포츠다!



넥센 히어로즈의 승리소식을 끝으로 우리의 야구장 관람은 끝이 났다. 이번 야구장 관람에 참여했던 총 11명의 학우 중 야구장 관람 경험이 있었던 학우가 4명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이번 관람이 첫 번째 야구 관람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들에게 저마다 소감을 물어 보았다.

← 야구가 끝난 후 야구장을 배경으로...

이정민에게 야구란? “나에게 야구란 남녀노소 보편적인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다”

이용준에게 야구장이란? “나에게 야구장이란 편집부 일에만 틀어 박힌 딱딱한 느낌이 아닌 같은 학생회원으로서는 다른 사람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해소원!”

황순근에게 치맥이란? “나에게 치맥이란 홈런이다! 홈런도 칠 때마다 기쁘고 치맥도 먹을 때마다 기쁘기 때문에!”

김채영에게 목동이란? “목동에 위치한 야구장과는 거리가 많~ ~ 이 먼 나였지만 이번 계기로 야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최가희에게 프로야구란? “나에게 프로야구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세계다”

임현설에게 넥센 히어로즈란? “나에게 넥센 히어로즈란 야구꿈나무들의 꿈과 희망이다”

이번 야구장 관람은 야구를 몰랐던 아이들이 야구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은 물론, 선후배사이를 돈독하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번 글을 계기로 야구를 몰랐던 분들에게는 야구의 매력을, 야구를 좋아하던 분들에게는 지나가는 재미거리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친다.

기사 : 11 임호영 편집 : 11 안미현

CRITICAL

Guitar : 06 이시연
07 박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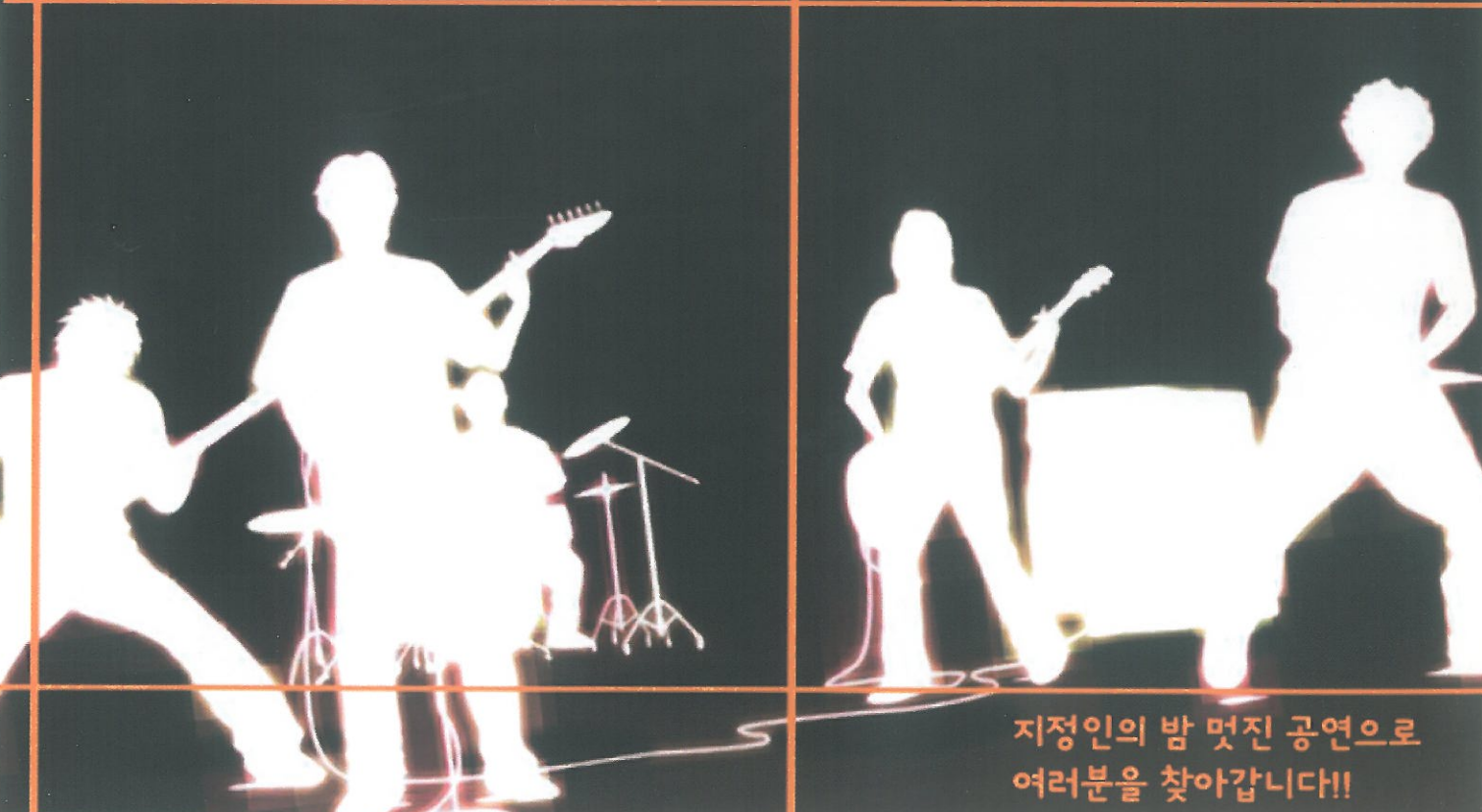
Bass guitar : 11 유택진

Drum : 08 김무영

Keyboard : 11 권혜진

Vocal : 07 주현권
11 정주용
12 고주연

문가, 보어드리겠습니다!!



지정인의 밤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 : 12 이용준

2012 지정인의모습 ♥



편집 : 12 김채영

S/S시즌, '지정인' 들을 위한

Hot Trend 패션 / Hot Place

안녕하세요! 드디어 1년 중 가장 더운 계절이지만 멋진 지정인 여러분의 열정을 태우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절이 왔어요! 지금부터 멋진 지정인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Hot Trend 패션아이템' 입니다. 이번 여름 제가 추천해드릴룩은 바로 마린룩입니다. 마린룩은 해병들의 유니폼을 바탕으로 생겨난 패션이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고 있습니다.

① 모자

마린룩에 어울리는 모자는 다양하지만 저는 모자의 기능과 멋을 둘 다 지킬 수 있는 페도라를 추천해드릴게요. 햇빛이 강한 여름 페도라는 우리들의 소중한 얼굴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페도라의 종류는 소재, 디자인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 마스재의 페도라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2012 여름에는 비비드컬러가 유행이기 때문에 페도라도 비비드컬러로 선택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② 상의

스트라이프가 들어있는 옷이라면 마린룩을 위한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화이트와 블루 또는 블랙이 대비되면서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바캉스나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입고 연예인들도 S/S시즌이 되면서 많이들 입는 것 같아요.

물론 마린룩의 상의는 티셔츠 뿐 아니라 재킷, 셔츠, 블라우스 등 많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③ 하의

마린룩의 하의는 블루, 블랙, 화이트 계열로 입는 것이 보통이지만 체크무늬나 스트라이프 무늬의 하의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연소재나 청소재가 이용됩니다. 연이나 청 같은 소재는 눈에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린룩의 팬츠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또 스קי니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קי니진은 여름에 답답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다리라인을 살려주고 다른 아이템과도 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④ 신발

마린룩의 신발은 로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퍼는 최근 S/S시즌에 남성분들의 머스트 아이템이 될 정도로 인기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성분들도 플랫슈즈와 같이 로퍼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마린룩의 로퍼는 보통 화이트계열이 이용되지만 최근에는 비비드 컬러의 슈즈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ot Place'입니다. 예쁜 옷들 그리고 떠날 준비가 되었지만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모르는 당신을 위해! 지금부터 여름 'Hot Place'를 소개해드릴게요~!

대전에는 바로 대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머드 축제로 유명한 곳이지요. 낮에는 머드축제를 즐기고 밤에는 바닷가에서 친구와 담소를 나누면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추암은 해돋이로 유명한 곳입니다. 추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은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 42일간이니 참고해주세요!
추암의 명물은 바로 촛대바위인데요. 촛대바위는 5~6m정도 되는 바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촛대바위 전망대로 올라가 해돋이를 구경하면 정말 장관이랍니다. 그리고 연계관광지로 천곡동굴, 무릉계곡 등도 있어 볼거리가 더 다양합니다.

비빔밥과 공민왕 국밥으로 유명한 전주입니다. 전주는 음식뿐 만 아니라 한옥마을이라는 최고의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 한옥마을 근처에는 풍남문과 1914년에 지어져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 전동성당도 함께 위치하고 있어 볼거리도 다양한 곳입니다.

남원하면 추억탕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여름의 보양식으로 남원 추억탕은 정말 최고랍니다! 그리고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 만인의 총 등 관광지도 아주 많습니다.
또한 허브축제, 춘향제, 흥부제 등 많은 축제도 열리는 곳입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축제기간을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보성하면 당연히 녹차 밭이죠! 보성역에서 녹차 밭까지 바로 이어지는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달리면 시원한 녹차 밭에 도착하는데요. 보성 녹차 밭에는 바다 내음이 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수는 최근 여수엑스포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이죠! 여수에는 오동도, 향일암, 돌산대교, 진남관 등 많은 관광지와 돌게장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수의 관광지는 서로 거리가 좀 떨어져있기 때문에 모두 가보기 위해서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 : 11 장병근 편집 : 11 안미현

도심 속 작은도서관 '서경로 꿈마루도서관' 을 가다.



도서관 내부 모습 ▲



서경로 꿈마루 도서관 외관 ▲

서경로 꿈마루도서관은 지난해인 2011년에 개관한 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이다. 삶터 가까이에 자리 잡은 생활밀착형 '마을도서관' 임을 표방하는 서경로 꿈마루도서관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길음 뉴타운에 위치해 있다. 도서관에 찾아가려면, 4호선 길음역에서 하차하여 2번 출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1164번 버스를 타고 '서경로 꿈마루도서관 앞' 역에서 하차하거나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6번 출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1212번을 타고 마찬가지로, '서경로 꿈마루도서관 앞' 역에서 하차하여 오는 방법이 있다.

생활밀착형 마을도서관답게, 도서관 전체 시설은 2층 복층 구조의 돔 형이며, 규모는 대지면적 165㎡, 건축면적 128.7㎡(39평)에 불과하다. 1층에는 자료실과 사무실, 안내데스크, 화장실 등이 위해 있으며, 한켠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전시공간 그리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공간도 제공되어 있다. 우리가 찾아갔던 5월 말경에는 팝업북전시회와 그림책 작가 질 바클렘의 그림책 전시회가 열려있었다. 계단을 따라 올라 가면 2층에 도착 할 수 있다. 2층은 돔구조의 아기자기한 모습이 특징이다. 2층에는 2층 자료실 그리고 원화전시공간, 안내데스크 책을 읽을 공간이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바로 이곳에서 영화상영행사인 돔마루 극장이 펼쳐진다.

건축면적 39평에 불과한 서경로 꿈마루도서관은 아담한 외관과는 달리 작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립모금 운동과 참여에 의해 건립되어진 서경로 꿈마루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도서관다운 길을 모범적으로 걷고 있는 것이다. 꿈마루도서관은 일반적인 도서관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마을 어린이들과 나들이를 떠나는 '꿈마루 마을 나들이',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행사인 '돔마루 극장', 도서관이용자들과 함께 음식을 요리를 하고 먹는 행사인 '꿈마루와 손가락'등 마을주민들과 마을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서관의 노력과 더불어,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활동과 노력에 의해 도서관은 더더욱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다.

이러한 서경로 꿈마루 도서관의 원형은 "누구나 꿈꿀 권리를 누릴 세상을 원하며 도서관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는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성북구청이 설립하고 지원하는 성북구의 구립 도서관인 서경로 꿈마루도서관은 바로 이 느티나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느티나무재단이 위탁경영을 맡은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민간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더한 '살아 숨쉬는 도서관'을 그 모토로 삼은 느티나무도서관의 드높은 정신이 바로 서경로 꿈마루도서관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느티나무도서관재단에 의해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신이 들어간 서경로 꿈마루도서관은 바로 이 정신을 토대로 차츰차츰 그들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도심 속 작은도서관, 서경로 꿈마루도서관에 관심이 가는 이유이다. 삶터 가까이에 자리 잡은 마을도서관으로서, 이웃과 만나고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참여에 의해 자발성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도서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서경로 꿈마루도서관이 향하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길을 걸으며 주민들과 하나 되는 프로그램을 여럿 진행하고 있는 꿈마루도서관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 꿈도 머지않을 것이다. 도심 속 작은도서관 서경로꿈마루 도서관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한다!



새내기가 바라본 새·연·체·축!

날짜 : 2012. 2. 25 ~ 2012. 2. 27		날씨 : ☁ , ☁
제목 : 패기 넘치는 신입생의 이야기, 새터!		
일기 쓴 사람 : 12 김 욱		
※기억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봐요♥		
 		
<p>‘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준말인 ‘새터’가 준비된 충북 단양으로 출발하기 전 학교에 모였을 때 모두의 얼굴에는 새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보였다. 하지만 예정 출발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늦어지고 가는 길이 막히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 설렘과 기대감은 지루함으로 변해갔다.</p> <p>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정과만 따로 모여 프라이팬 놀이 등 조별 게임을 한 뒤 지정과 응원을 배웠다. 다들 맨 처음에는 낯설고 민망한 듯 목소리가 작았지만, 응원 연습이 계속되면서 목소리가 커졌고, 그때가 되어서야 서로서로 단합이 되는 것 같았다. 더불어 지정과에 대한 소속감도 생겼다.</p> <p>그 다음에는 지정과를 포함한 인대에 속한 모든 학과가 소강당으로 모였다. 그곳에서 팍팍 게임과 커플 신문지 게임, 스피드 퀴즈 게임을 하면서 각 학과 사이의 거리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게임이 끝난 뒤에 인문대 응원가를 하나 더 배우게 되었다. 지정과의 구호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구호를 인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외치면서 다른 학과에 대한 친근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p> <p>응원을 다 배우고 저녁이 되었을 무렵, 체육관으로 이동했다. 체육관에서는 TRIAX, NOD, 들불 등의 동아리 공연을 볼 수 있었다. 동아리 공연이 끝나고 NS윤지가 무대로 올라오면서 공연의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둘째 날의 공연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프로그램, HBS 방송국 홍보가 있었다. 공연의 마지막은 다이내믹 듀오가 ‘손 머리 위로!’를 외치고 예정에는 없던 앵콜 송까지 부르면서 다들 신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p> <p>그리고 둘째 날 저녁, 뒤풀이가 있었다. 뒤풀이를 하기 전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큰 소리로 FM을 하면서 어색함을 떨칠 수 있었다. 또한, 선배님들의 인솔 하에 다른 조와 합류하여 새내기의 경우에는 다른 새내기와 친해질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거기에 마징가Z, 공동묘지 등 지금까지 몰랐던 게임들을 배우고 벌칙을 수행하는 등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뒤풀이가 끝나고 날이 밝자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다.</p> <p>즐거웠던 새터였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숙소로 도착하는 것이 늦어져서 제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매우 급하게 이동해야 했던 것과 시간 때문에 조별 장기자랑을 못한 것이다.</p> <p>그러나 새터에 가서 느낀 보람은 그 아쉬움을 모두 날려 버릴 만큼 즐거웠다.</p>		
중요한 일 새터 짱!	착한 일 열심히 응원을 배운 것.	
반성 더 많은 친구랑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할 일 새터 때 사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날짜 : 2012. 3. 31 ~ 2012. 4. 1		날씨 : ☁ , ☁
제목 : 신~난다. 아- 재미난다! 지정의 연합MT		
일기 쓴 사람 : 12 이보라, 12 임현설		
※기억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봐요♥		
 		
<p>연합MT를 떠올렸을 때 장기자랑이나 학생회의 이벤트가 있었던 뒤풀이도 재미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후배 간의 단합심을 키울 수 있었던 운동회가 아닐까 싶다. 첫 시작은 OX 퀴즈였다. 삼학송 같은 학교상징들에 대한 문제, 한성대 입구역에서 2번 마을버스를 타고 한성대까지 갈 때 거치는 정류장의 개수, 학교 건물은 모두 몇 개인가 등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나와 당황스러웠으나 한편으로는 신선한 문제들이라 재미있었다.</p> <p>또 흥미진진했던 경기는 줄다리기이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5, 6조 연합팀은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상대팀 모두를 압도하면서 우승을 손쉽게 거머쥐었다. 경기하는 동안은 좋지 않은 날씨였지만 피구, 단체줄넘기, 계주 등 이길 듯 하면서도 역전당하는 아슬아슬한 경기를 보여주어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지정인의 손에 땀을 주게 하였다.</p> <p>게임 외에 상품 뽑기도 소소한 재미를 주었다. 각 게임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매화수, 몽썰, 사탕, 전공서적 등의 상품을 고를 기회가 주어졌다. 어느 게임에서도 우승하지 못해 상품 뽑기를 하지 못하고 침울해하던 조들은 반전상품이었던 전공서적을 뽑은 4조를 보고 웃을 수 있었다.</p> <p>우리는 연합MT 운동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운동경기, 기발한 상품 등을 계획하고 준비한 학생회의 수고와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p> <p>연합MT에서 즐거웠을 뿐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시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교수님들과의 대화시간이었다. 조별로 교수님이 한 분씩 오셔서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과 지식정보학부에 대한 비전, 현실적인 취업문제, 사서 직업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생각 등 지정인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처음에는 교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해서 딱딱하고 어려운 자리가 될 것 같았는데 교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학생들에게 술을 따라주시고 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풀어놓으셔서 생각과는 다른 편한 만남이 될 수 있었다. 이번 MT는 선배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새내기 12학번까지 지식정보학부 모두가 함께 모여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즐거운 연합MT였던 것 같다.</p>		
중요한 일 연합MT는 즐거웠고 유익했다.	착한 일 적극적으로 경기에 참여한 것.	
반성 상품 뽑기는 신중히 해야겠다...ㅠㅠ	다음에 할 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해야겠다.	

날짜 : 2012. 3. 31 ~ 2012. 4. 1		날씨 : ☁ , ☁
제목 : 빛나라 지정의 ★!		
일기 쓴 사람 : 12 황순근, 12 최가희, 12 이청수		
※기억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봐요♥		
		
<p>2일 동안의 연합MT에서 가장 재밌었던 것은 12학번 새내기들의 장기자랑이었다. 작년 장기자랑 때 했던 콩트와 다르게 올해의 장기자랑은 춤과 노래를 위주로 하여 아주 활기찬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춤과 노래를 연습해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더욱 완벽히 하기 위하여 각 조의 새내기들은 분장을 하고, 가면이나 마술 지팡이 같은 소품들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이용준과 황인애라는 두 명의 새내기가 지정인을 사로잡았다.</p> <p>먼저, 이용준 학우가 속한 3조의 무대가 끝나자 지정인들은 3조를 향해 앵콜 신호를 보냈다. 이용준 학우는 여장을 한 채 홀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여자가 남자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듯한 착각을 가져다주었다. 이용준 학우는 이 무대에서 진가를 발휘하여 연합MT의 장기자랑 무대를 빛내주었다.</p> <p>무대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황인애 학우가 속한 7조가 등장했다. 황인애 학우는 짧은 가발로 남장을 하여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으나 코믹한 만화주제가를 불러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황인애 학우의 겉모습과 만화주제가에 웃고 있던 지정인은 목소리를 통해 남자가 아닌 여자임을 깨닫고 놀랐으며, 두 번째로 짧은 가발로 미남이 된 황인애 학우를 보고 다들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며 놀라워했다.</p> <p>재미있는 장기자랑이 끝나고 4월 1일 새벽이 되었다. 모두가 신나게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다. 그때, 부학생 회장님께서 무대로 올라가서 시간이 늦은 만큼 노래 소리를 되도록 줄이고 조용히 놀자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달아올랐던 분위기는 싸늘히 식어버렸고 고학번 선배님들과 학생회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새빨간 얼굴로 나가는 등 상황은 더욱 나빠져서 금방이라도 주먹다짐이 오갈 듯했다. 12학번 새내기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찌 할 줄을 모르고 바짝 얼어 있었다.</p> <p>그러던 어느 순간, 학생회장님께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12학번 새내기들을 향해 “여러분! 오늘 만우절인 거 아시죠? 즐거운 밤 되세요~!” 라고 하셨다. 이 모든 것은 12학번 새내기들을 위해 학생회에서 꾸민 ‘만우절 몰래카메라’ 였던 것이다. 모든 것이 학생회의 이벤트라는 말에 냉랭하던 분위기가 풀렸고 12학번 새내기들은 서로 쳐다보며 어리둥절해 하였지만, 다시금 우리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우면서도 뜨거운 밤을 보냈다.</p>		
중요한 일	착한 일	
장기자랑과 만우절 이벤트는 즐거웠다♥	열심히 장기자랑을 준비한 것.	
반성	다음에 할 일	
만우절인 거 모르고 속아버렸다ㅠㅠ	만우절을 미리 알고 대비하자.	

날짜 : 2012. 5. 2 ~ 2012. 5. 4		날씨 : ☁ , ☁ , ☁
제목 : 지정의 역습!		
일기 쓴 사람 : 12 최가희, 12 황순근		
※기억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봐요♥		
		
<p>2012년 5월 2일, 드디어 기다리던 인문대 체육대회가 열렸다. 인문대학의 4개 학과가 5가지 구기종목과 줄넘기, 계주 등의 여러 종목에서 이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p> <p>3일 아침에 영문과의 발야구 경기가 있었다. 비록 수업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응원에 참가하지 못했고, 여러 선수들의 부상으로 출전 선수들이 부족해지기도 하였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지정과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다음날 11시에 역사과의 결승전이 있었다. 결승전은 지정과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1회에서 지정과는 2점을 얻고 역사과는 점수를 얻지 못해, 경기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역사과는 놀라울 정도로 경기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상대 팀 선수들이 힘껏 차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공에 우리 선수들은 당황하여 연이어 점수를 내주고 말았다. 게다가 심판이 한 곳에만 있다 보니 경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볼지 못해 실망스러운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아쉬움이 많았던 경기였지만 지정과는 발야구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비록 졌지만 최선을 다한 경기였기에 모두가 만족하였다.</p> <p>축구경기는 2일에 있었다. 경기 초반부터 지정은 맹공격을 펼쳐 승리의 조짐을 드러냈다. 정확한 패스와 수차례의 슈팅으로 눈을 뗄 수 없는 경기를 이어나갔다. 더불어 응원의 열기도 점점 뜨거워졌다. 지정과와 국문과는 각자 자신의 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 목소리로 응원했다. 출전선수들은 그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경기에 임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응원단은 출전 선수들의 부상을 걱정했으나 그들은 비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다. 다행히 비는 금방 그쳤고, 무리 없이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지정은 이 경기에서 2:0의 쾌거를 이루었고, 지정과는 결승에 진출하였다. 이 두 골은 모두 김영기 선배님의 활약으로 얻은 결과였다. 4일 오후, 우리는 영문과와 결승전을 치렀다. 양 팀의 열띤 응원전으로 화끈하게 달아오른 분위기속에서 경기는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점수는 2:1로 지정의 우승이었다. 이 두 골 또한 김영기 선배님의 작품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골의 주인공, 김영기 선배님은 축구경기의 MVP가 되었다.</p> <p>체전 마지막 날에는 구기종목 외에도 다양한 경기종목이 있었다. 첫 경기는 줄다리기였다. 우리는 “하나, 둘” 구호를 외치며 열띤 응원을 했다. 출전선수들은 힘을 합쳐 구호에 맞춰 줄을 당겼다. 잘 짜여진 전략을 이용하여 우리는 줄다리기 우승을 차지했다. 다음 경기는 단체줄넘기였다. 총 10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는데, 선수들은 서로 손을 잡고 열심히 줄을 넘었다. 결과는 2위였다. 연습 때보다는 아쉬운 결과였지만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선배배 간의 훈훈한 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p> <p>다음에 이어진 경기는 계주였다. 계주는 네 명 모두 12학번이 선수로 출전하였다. 처음에는 우리가 선두로 달리고 있었지만, 후반의 실수로 3위를 하게 되었다. 마지막 경기는 스페셜 레이스로, 각과의 학생회장님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경기였다. 미션은 하이힐과 여성용 끈 슬리퍼, 그리고 마대자루 두 개였다. 학생회장님의 미션은 운 좋게도 여성용 끈 슬리퍼였다. 다른과의 학생회장들이 어려운 미션에 찢쩍대는 동안, 우리 학생회장님은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였다. 영문과와 1, 2위를 다투던 상황에서 한 1등이었기에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인문대 체전 종합우승으로 우리는 빛나는 트로피와 소정의 상금을 받았다. 역습에 성공한 우리는 상금으로 축하파티를 열었다. 맛있는 음식과 술, 그리고 지정인들이 함께한 축하파티는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p>		
중요한 일	착한 일	
지정과 우승!	열심히 응원한 것.	
반성	다음에 할 일	
경기에 출전할 선수들이 많이 없었던 것...	내년에도 우승하기!	

날짜 : 2012. 5. 23 ~ 2012. 5. 25

날씨 : ☀, ☀, ☀

제목 : 우리들의 행복한 Festival!

일기 쓴 사람 : 12 이청수

※기억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봐요♥



2012년 5월 23일 대동제가 시작되었다. 지정과의 많은 집부들은 각각 사업을 시작하면서 축제를 맞이하였다. 우진사에 모든 집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저마다 재미있는 사업을 하여 중문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선전부는 달고나 만들기, 문화부는 다트 던지기, 기획부는 물풍선 던지기, 편집부는 동전 던지기과 건빵 빨리 먹기를 하였다. 다들 집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모든 집부가 약간의 수입을 얻은 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집부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후, 중앙 무대에서는 낙산가요제가 시작되었다. 낙산가요제의 참가자들은 모두 순수 창작곡을 선보였는데 다들 준비해온 곡도 참신했고, 노래도 잘 불러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낙산가요제가 끝나고, 첫날 축제의 마지막은 초대가수 정인이 무대를 장식했다.

24일과 25일은 주점을 열어야 해서 아침부터 주점 준비로 바빴다. 지정과의 주점 컨셉은 지옥이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아쉬웠다. 행주나 수세미 등을 준비하지 못한 것, 마지막에 맥주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지옥 컨셉을 위해 마녀 모자를 주문하였는데 머리에 고정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모자는 부메랑으로 변해버려서 모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점 한 구석에 두어야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옥주점을 찾아온 많은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했던 많은 12학번 동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 밤에는 가수 김장훈이 축제분위기를 더욱 띄워 주었고, 불타는 금요일답게 English Lounge에 열린 클럽도 밤이 새도록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English Lounge 클럽은 지옥주점과 마찬가지로 한성대의 핫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English Lounge 클럽에서 춤을 추고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불타는 금요일을 즐겼다. English Lounge 클럽을 마지막으로 대동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축제는 새내기들이 한성대에서 보낸 첫 번째 축제였다. 새내기들에게는 처음이라는 설렘이, 그리고 재학생들에게는 바쁜 학기 중에 갖는 작은 행복이 함께 한 행복한 축제였을 것이다.

중요한 일	착한 일
대동제는 여러모로 의미있는 축제였다.	주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한 것.
반성	다음에 할 일
새내기 주점 준비가 부족했다ㅠㅠ	내년에는 대동제를 즐겨야지♥



편집후기

11 안미현

편집부에 들어와 벌써 세 번째 그림비를 만나게 되었다. 지난 그림비와는 다르게 12학번 후배들까지 같이 힘을 모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서인지 선배님들이나 동기들과 함께 작업했을 때와는 다르게 책임감이 더 필요했고 더 부담이 되었다. 또 그림비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탓인지 걱정도 많이 되고 결과에 대해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편집을 맡게 되어 편집부 동기들과 후배들의 기사를 하나 둘씩 받고 그림비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면서 걱정도 불안도 사라지게 되었다. 동기들은 예전 그림비와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걱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후배들은 처음 만들어 보는 그림비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텐데 너무 좋은 기사들을 쓰고 너무 멋진 편집을 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편집과 기사를 나누어 제작을 하게 되어 모든 기사에 관한 것은 차장인 호영이가 맡아서 해주었는데 모든 기사들을 수정해주고 더 알찬 내용의 그림비가 나올 수 있게 해준 호영이에게 감사하다. 또 틀이 많이 달라져 참고할 것이 없었을 텐데 새롭게 그림비를 만드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준 나머지 11명의 편집부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매번 그림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 주시는 서은경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축하하게 여는 말씀을 부탁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림비의 첫 장을 너무나 좋은 내용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정경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인터뷰에 친절하게 답해주신 박성재 교수님과 학술정보관 정미영 선배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림비 제작에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김유리 선배님과 황주하 선배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림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한 학기를 알차게 보내준 우리 지정인들에게도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그림비를 보니 벌써 다음에 나올 그림비가 기대된다. 아직 많이 부족한 그림비를 많은 지정인들이 그림비의 변화를 지켜봐주고 도움을 주고 함께 채워 나가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편집부 사랑합니다♥

11 임호영

올해도 어김없이 편집후기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 이 무렵 편집부에 들어와 처음으로 편집후기를 썼었는데, 어느덧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보면 시간이란 것이 정말 빠른가보다!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점은 지식정보학부 29대 학생회 고태호 편집부 차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후기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번 그림비는 말은 자리만큼이나 부담감이 함께한 그림비였다. 작년엔 그저 말은 기사를 작성하고 고치는 것이 전부였지만, 올해는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선 변함이 없지만 다른 편집부원들의 기사를 모두 다 고치고 조정하는 일이 추가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차장이라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리에 앉아보니 자리에서 오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했고 하는 일이 여간 많지 않을 수 없었다. 덕분에 이번 학기는 아주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지낼 수 있었다. 고맙다 그림비..TT

그리고 이번 2012년부터는 그간의 다소 딱딱했던 그림비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는데, 이 또한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갑작스런 변화로 어찌할지 어리둥절한 경우도 많았다. 물론 무엇보다도 부장인 미현이의 고생이 가장 컸다. 그동안 해오던 써오던 편집 틀을 과감히 깨고, 그림비에 일러스트적인 면을 강조해 입혀려다보니, 한 번 더 생각해야하고, 손도 더 가는 일이었다. 이 같은 그림비의 새로운 도전에 뿌듯함을 느낀다. 물론! 이번 그림비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편집부원들 모두 한 학기동안 고생이 많았다. 처음 하는 그림비 작업이었는데, 군소리 없이 잘 따라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학기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 그림비를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란다는 것이다. 조금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번 그림비 작업에서 그 누구보다 노고가 많았을 부장 미현이에게 격려를 보낸다. 그리고 모든 편집부원들에게도 수고의 말을 전한다. 정말 진심을 담은 멘트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11 박대현

새내기 학년을 벗어나니 여유를 가장한 게으름과 나태함이 생겼다. 그래서 막바지에 고생을 자초하게 된다. 편집부에서도 이제 선배 입장이 된 셈인데, 전혀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제일 먼저 아쉽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엔 꾸미기에 더 비중을 뒀서 기사를 적는 일과 편집을 하는 일을 분담했는데, 분명 기존의 그림비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그림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림비 역사에 분기점을 세운 느낌이다. 그림비가 컬러로 나올 수 있다면 훨씬 더 잘 꾸밀 수 있었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쉽다. 언젠가는 컬러 그림비도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나는 편집 역할을 맡았는데, 때문에 작업하면서도 훨씬 즐거웠다. 기사도 기사지만 내가 편집부에 들어오면서 그런 모습이 이런 테크니컬한 편집 모습이였다. 물론 바란 만큼의 효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꾸미효과로 조금이나마 그림비로 눈이 더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이번에 거의 일을 도맡아 처리한 부장, 차장님에게 먼저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학기 초에 활동이 없어서 이제야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후배들, 편집 과정을 도와준 친동생에게도 수고와 감사를 전한다.

<기사담당>

12 김옥

기사를 하나 쓰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아, 힘들었다.’ 였다. 글을 써본 것은 고등학교 때 하다가 논술할 때 써본 것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글 쓰는데 힘들었다. 글 쓰면서 다른 아이들이랑 새터 때 서로 느낀 점을 말했을 때 생각하던 것이 나랑 달랐던 기억난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서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새터가 다른 것이 재미있었다. 항상 글 쓰다 보면 맨 처음은 잘 써도 중간쯤 가면 쓸 내용이 생각이 안나 머리 싸매며 무슨 내용을 쓸까 고민한다. 남들 보면 잘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해 보지만 글 많이 쓰다 보면 점점 고민하는 구간이 줄어 들 거 같다고 생각한다. 글 실력 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써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이다.

이번에 학교 행사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했더니 기사를 쓸 기회가 많지 않았다. 글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서 많이 쓰는 것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2학기 때는 조금이나마 더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12 이보라

고등학교 때 기사 종류의 글을 잠깐 써봤는데 막상 편집부에 들어오고 기사를 맡게 되고 나서는 ‘내가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그림비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제일 처음 연합엔티에 대한 기사를 맡게 됐을 때도 솔직히 막막했지만 몇 시간을 고민하고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하면서 기사를 완성했을 때 기사를 썼다는 뿌듯함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새터, 연합엔티, 교수님과 선배님 인터뷰 등 그림비에 들어갈 내용이 하나하나 채워질 때마다 실제로 완성되어서 나올 그림비가 너무 기대되었다.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그림비를 재미있게 많이많이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일 처음 OT때 집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편집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편집부의 일원이 되어서 너무 너무 좋고 편집부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내 사랑 편집부! 길이 남을 편집부! 화이팅!!!!^^*

12 이정수

그림비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정인의 역사를 한군데에 모아놓은 것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기사 하나를 쓰기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가~! 그런 노력들이 모여 이렇게 소중한 역사를 기록한 그림비가 탄생하다니~!! 편집부 선배님들이 왜 그림비를 애지중지하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고,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 내가 처음으로 집필해 본 그림비라 많이 서툴고 정신없이 기사를 쓴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다. 앞으로 탄생할 미래의 그림비를 위해 평소에 미리미리 기사도 생각해 보고, 기사에 어울리는 기사제목도 생각해 놓아야겠다. 특히, 그림비 독자들의 입장에서 기사제목은 그냥 눈길 한번 스쳐지나가는 글씨일지 모르나 그 제목을 짓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은 편집부원들을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림비를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앞으로도 재미있는 그림비를 만들겠습니다~! 그림비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요~*^o^* 길이 남을 편집부 짱~!!! 길이 남을 그림비 짱~!!

12 임현설

여러 부서 중에 편집부에 들어가고 싶어진 계기는 그림비이다. 그림비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재미있고 알차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기사담당이라 기사를 처음 쓸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멤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떠올려보니 훨씬 쓰기 수월했다. 기사를 쓰면서 새터, 연합 MT 등 즐거운 추억들을 떠올려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글로 남기게 되어 나중에 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기사담당을 맡기 잘했다고 생각했다. 편집부 활동 중에 교수님과의 인터뷰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야구 기사를 쓰기위해 함께 야구장에 갔었는데 나는 처음 간 것이라 신세계이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안미현 부장님과 임호영 차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편집부에 들어와서 한 활동 모두가 나에겐 새롭고 값진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편집부 활동을 하면서 더욱 좋은 경험을 쌓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나올 그림비 너무나 기대가 된다. 모두들 새로워질 그림비를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편집부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 모두가 기대하며 손꼽아 기다리도록 멋진 그림비를 만들고 싶다.^♥^

12 최가희

처음 기사를 쓸 때에는 조금 막막했다. 기사라는 글을 써 본 적도 없었고, 막상 쓰려니 어색하기도 해서 어려웠다. 하지만 부원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써 나가다 보니 어느새 기사가 완성되어있었다. 나름 열심히 써서 완성된 글이라고 해도 기사가 아닌 일기 같아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편집부에 들길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편집부 부장 미현선배님, 차장 호영선배님, 다른 선배님들까지 너무 친절하고 편하게 해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원들끼리도 마음이 맞고 단합도 잘 되어 좀 더 편하게 글을 썼던 것 같다. 또한 무엇보다 교수님, 선배님 인터뷰나 기사쓰기 등 편집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해 본 것 같아 좋았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편집부 부원 모두가 열심히 작성하고, 편집한 글이 그림비에 실렸을 때를 생각하면 많이 뿌듯하다. 벌써 한 학기가 지나 그림비가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다. 2학기 때 나올 그림비는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보야겠다!^^

12 황순근

처음 지식정보학부에 입학했을 때, 선배님들께서 집부 홍보를 하셨다. 그 때에 나는 편집부로 시선이 갔다. 왜냐하면 평소에 나는 기자와 같은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 과의 1년 역사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일이 중요한 일인 것 같고, 흥미롭게 느껴졌다. 기사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에 편집부에 들지 말지 고민을 조금 했지만, 믿음직스러운 편집부 선배님들과 함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부에 들기로 결정했다.

12학번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림비의 표지를 상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필요한 사진도 다 같이 모여서 찍었다. 내가, 우리가 그림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뿌듯했다. 편집부는 기사 담당과 편집 담당으로 나뉘었는데, 나는 기사를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기사 담당으로서의 첫 임무는 새터와 연애키사였다. 다른 기사 담당 아이들과 함께, 파트를 정하고 나서 머리를 맞대고 기사를 써내려갔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지난 추억을 더듬어가며 기사를 쓰다 보니 재미는 물론이고 중대한 임무를 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편집부끼리 기사를 쓰기 위해 야구장을 간 것도, 편집부원으로서 축제 대에 사업을 한 것도, 그리고 체전 기사를 쓸 때에 어떻게 추려야 할지 몰라 애를 먹은 것도 이제는 귀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워드 작업을 할 때, 특히 학교에서 노트북을 빌려서 스튜디오에서 기사를 쓸 때는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 정도였다.

편집부에서 좋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또한 선배님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이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2학기 때에는 더욱 완성도 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2012 상반기 그림비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된다.

<편집담당>

12 김채영

대학을 들어오면 동아리를 꼭 들어보라고들 말하는데, 편집부를 선택해서 들어온 이유는 ‘그림비’를 낸다는 것 때문이었던 것 같다. 다른 동아리나 부서들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맘에 들었다. ‘편집’이라는 것이 글, 사진이나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막상 만들려고 하니 시작부터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기사 하나 하나를 완성할 때 마다 기사가 그림비에 실릴 생각을 하니 뿌듯하기만 했다. 앞으로 나올, 나에게는 첫 번째일 그림비가 너무 기대된다! 벌써부터 2학기에는 무슨 기사들을 놓게 될지, 또 다음해엔 어떤 그림비를 만들게 될지도 기대된다. ‘길이 남을 편집부’ 정말 길이길이 남아서 좋은 그림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정인들 모두 그림비 많이 많이 봐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12 이용준

전 편집부가 하는 '그림비'와 같은 회지를 만드는 이번으로 3번째 정도 되지만, 그래도 할 때 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비록 인터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터뷰 하신 분들의 멋진 이야기를 보고 또 다른 감회를 느끼기도 했구요. 여러 가지 과제나 약속이 밀려서 예정보다 늦게 제출하게 된 제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나름 힘써 작성하고 나니 참 느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글로만 작성 하는 것 보다, 배웠던 것을 사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편집형식으로 글을 만들고 나니, 조금 더 자신이 붙는 느낌도 드네요. 제가 편집했던 건 '정미영' 선배님과의 인터뷰와 치명타 홍보 기사였는데, 치명타 홍보기사는 원래 예정과는 틀어져서 1쪽밖에 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네요. 그리고 '정 미영' 선배님과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선배님의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그만 넣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네요. 힘들다고 하면 힘들었고, 그렇기에 재밌었다고 하면 재밌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회가 더 늘면 제 스펙이 상승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12 이정민

시간이랑 경험이 부족해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다. 내가 맡은 표지 디자인은 포토샵으로 만든 것 이었는데 초등학교 이후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간단한 기능을 활용하는데 더 무척 애를 먹었다. 처음 편집부에 들어올 때는 이전 그림비들 보다 훨씬 개선된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도 많고 무엇보다 나와 편집부원들이 원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실력이 갖추어 지지 않아서 아쉬웠다. 게다가 다들 한창 바쁠 때 작업하다보니 기사나 편집이나 많이 미숙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새내기로 학교에 들어와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반기 그림비에 더 세련된 디자인을 하고 싶지만 제작에는 참여 하지 못할 것 같아 아쉽다.

12 임진영

벌써 6월이 다가온다. 처음 신입생으로 들어온 기억이 생생한데도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갔다. 1학기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면, 그중에서도 단연 편집부 그림비를 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라 열 명이 넘는 편집부원이 함께 한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다. 그리고 처음 편집 작업을 맡았을 때, 기사 작성보다 쉬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편집이 단순히 내용 편집뿐 아니라 양식 편집도 있었기 때문이다. 편집 작업을 처음 하느라 실수를 연발한데다가 제한 시간도 어겨가면서 선배님께 누를 많이 끼쳤다. 다행히 선배님의 충고 덕분에 많은 점이 나아졌다. 선배님도 바쁘셨을 텐데 내 사정만 생각한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다. 2학기 때에 또다시 그림비를 내야 할 텐데 그때는 편집부 기한을 확인하면서 어기지 말아야 할 것 같다.

편집부장 : 11 안미현

편집차장 : 11 임호영

편집부원 : 11 박대현

12 김욱, 김채영, 이보라, 이용준, 이정민

이청수, 임진영, 임현설, 최가희, 황순근



12학번 편집부 아이들♥

길이 남을 편집부...

발행일 : 2012년 5월 28일

발행처 : 지식정보학부 '길이 남을 편집부'

발행인 : 11 안미현

지식정보학부 29대 학생회

고함소리

질이남을 편집부..